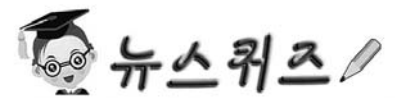




박소현의 섹.시.토크

그녀들을 너무 미워하지 말자?



원래는 야근을 하기로 한 날이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 다음날까지 처리해야 할 업무가 한 주 뒤로 미뤄졌고, 그래서 K는 평소 퇴근시간보다 두 시간 정도 늦었을 뿐인 9시 즈음에 집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가 좀 오래된 우리들이 피식거리며 웃자 K는 더 흥분했다. "지금 비웃는 거야? 그래, 니들 남편들은 야동 안보다 이거지?"



했고, 한번만 더 보는 것 걸리면 이혼이라고 했어. 솔직히 지금 심정으로는 별거라도 하고 싶어."

눈 앞에서 남편이 내가 아닌 다른 여자의 몸을 보고 흥분하는 것을 목격했으니 그 충격이 적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K의 흥분에 동참하기도 힘들었다. 어쨌든 우리는 친구된 도리로 중재

여자들과고만 상대(?)하는 건 양반 축에 속하지." "맞아, 그 여자들은 문자도 안 보내고 술값 내라고도 않고, 뭐 사 달라 하지도 않잖아."

"그리고 이 여성들을 이따금 흥분하는 남편의 본능까지 모두 장악하려 하지도 말고."

집안은 어두웠다. 거실은 깜깜하고 서재 방에서만 희미하게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영화라도 보나 싶어 조용히 다가간 K는 조금 열린 서재방문 앞에서 그만 얼어붙고 말았다.

면 몰라도."하고 다른 친구가 거들었다. "그래, 남자니까 보는 것 정도는 심분 이해한다고 쳐, 근데 우리가 주말부부도 아니고 우리 잠자기가 나쁜 것도 아닌데 그거 보면서 자위까지 한다는 건 아내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 자기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럴 수 있어?"

나서야 한다는 눈빛을 주고받았다. "야동 보면서 자위하는 건 와이프에 대한 사랑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나 그녀도 머지않아 소피아, 비앙카, 소냐 등 내 남편의 파일 안에서 살고 있는 그녀들에게 오히려 고마워할 때가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니, 확실하고 있다. <연애칼럼니스트>

86. 교육부가 2008학년도 대학 수능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를 본격 기동했습니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에 들어갔으며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휴대하는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정답을 표시한 뒤 매주 일요일까지 신문을 오려 보내 주시면 2주마다 당첨자를 선정, 1위 삼성전자 고급 진공청소기 1대, 2위 무동파크호텔 숙박권 1매를 보내 드립니다. <연락전화번호 미표기시 추첨에서 제외>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0월 26일(음 9월 16일 癸巳)

Table with 12 rows representing zodiac signs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and their corresponding fortune predictions for the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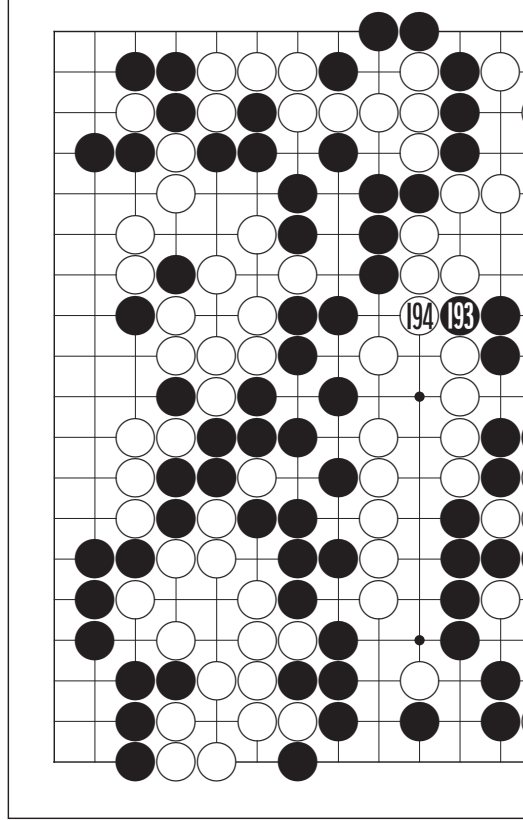
검색절정 키워드

모델 출신 가수 주니아 세미누드 화보 '후끈'

연예계 대표적 잉꼬 커플로 소문났던 유명 연예인들의 이혼 소식으로 인터넷이 뜨거웠다. 탤런트 박철(39), 옥소리(본명 옥보경·39) 부부가 파경을 맞는데 이어 이영하(57)와 선우은숙(48)씨도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 전해지면서 네티즌들의 클릭 세례를 받았다.

MBC TV 판타지 사극 '태왕사신기'의 철거면 무사 이필립이 인터넷 화제 인물로 떠올랐다. 24일 태왕사신기 예고편을 통해 공개된 처로역의 이필립(26)은 미국 보스턴대에서 학사를 마치고 조지워싱턴대 석사과정을 마친 데다 188cm라는 모델처럼 큰 키에 준수한 외모를 가졌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필립이 누구냐"며 궁금해하는 네티즌이 많았다.

분이 파인 이른바 '비키니진'을 유행시키기도 했다. 플레이보이 모델 이파니의 스타화보를 찾는 네티즌도 많았다. 이의 인터넷 쇼핑물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170cm의 늘씬한 몸매를 드러낸 케이틀레널 YTN스타 손문선 아나운서, 영화 '색, 계'를 통해 강도 높은 베드신을 선보인 양조우와 탕웨이, 최근 열린 2007 서울 컬렉션에서 패션 모델로 데뷔한 2007 미스인터콘티넨털 2위 유한나(25), '24'라는 숫자가 돌(2)이 서로 사(4)과하라는 뜻이라는 점을 들어 지정된 '애플데이'등도 네티즌들의 관심을 모았다.



최강부 준결승 2국 백 심재욱 6단 흑 노기철 5단 후반에 접어들수록 노기철 5단의 난조가 계속되고 있다. 백으로 위협해 왔을 때 흑 173이 또 떨어졌다. 이 수로는 전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도'의 흑 1로 보여야 했다. 백 2로 찢혀오면 3으로 물러서고 5에 두면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

절묘한 끊음수 8보(173~202) 흑 173이 또 떨어졌다. 이 수로는 전보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참고도'의 흑 1로 보여야 했다. 백 2로 찢혀오면 3으로 물러서고 5에 두면 깨끗하게 살 수 있었다.

바둑소식 제일화재·영남일보 1승1패 충북 제일화재와 대구 영남일보가 지난 24일 한국기원 바둑TV 스튜디오에서 열린 KB국민은행 2007한국바둑리그 13라운드 첫날 경기에서 1승씩을 나눠 갔었다.

굿모닝 잉글리쉬 <1020>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정거장은 어떻게 갑니까? A: Excuse me. Could you tell me how to get to the station? B: Yes. Turn left at the next corner and go two blocks. You can see the station from there.

오하오우 니혼고 <1020> 今日(きょう)の試合(しあい)はどうでしたか. 오늘 시험은 어땠어요? A: それにしても、マリナスのイチロの人氣(にんき)はすごいですね.

니하오 쑹구위 <210> 改天咱们比赛一下 다음에 우리 경기 한번 하자 A: 我也喜欢打网球, 改天咱们比赛一下. Wǒ yě xǐhuan dǎ wǎng qiú, gǎitiān zǎmen bǐsài yíxià.

한자 이야기 <637> 洗耳(세이) 씻을 세, 귀이 세이(洗耳)는 귀를 씻는다는 말로, 더러운 말을 들은 귀를 씻고 깨끗이 한다는 뜻이다. 즉 흥심이 고결하여 세속에 물들지 않음을 비유한다.

더마플라스트 밴드 Derma-Plast. 운수는 나빠도 상처는 흉터없이!! www.cafe.daum.net/sajoo114 ☎11-632-6121